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68

2016. 9.11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
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
르리로다

(시편 100:4-5)

오늘의 주요기사

- 2 국내선교
- 3 영화로 성경읽기
- 4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 5 목회칼럼
- 6 아가나들이

교회 일정

9/19(월) 정기당회
10/2(주일) 성찬주일
1차 항존직 선거(공동의회)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
주님의교회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 이해인 수녀, 9월의 기도 중에서

9월에 들어서며

곧 추석이다. 길고 유난스러웠던
더위를 막 보내고 맞은 선선한 계
절이 참으로 반갑다. 추운 겨울에
지내는 설과 달리 추석은 좋은 날
씨에 자리 잡은 명절이라 성묘를
비롯한 야외활동도 많다. 누렇게
벼가 익은 논과 풍성한 과일과 먹
거리, 온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으며 보름달을 맞는 그림이 그
려진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음
력으로만 짜여진 것이 아니라 양력
과 음력을 적절히 섞은 후, 음력으
로 달마다 배분한 것이다. 그래서
올 추석처럼 더위가 채 가시지 않
고 곡식과 과실의 수확이 먼 때에

도 절기가 돌아오곤 하므로 수확의
기쁨과 조상에 대한 감사라는 설명
은 다소 맞지 않아 보인다. 이때 거
뒤들이는 수확이 햇곡식과 햇과일
이라는 것은 풍성함보다는 앞으로
의 수확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겨진
다. 우리의 옛 문헌에 길쌈으로 서
로 겨루기를 하며 먹고 즐겁게 놀
던 행사에서 추석의 기원을 찾는
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길쌈으로 옷감을 마련하는 것이라
추측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
석은 완료 혹은 완성 후에 나누는
기쁨보다는, 중간에 되돌아보고 앞
으로 더욱 애쓰기 위한 중간 과정

으로서의 역할이 더 큰 명절이 아
닌가 싶다.

무더위로 지치고 풀어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옷매무새를 바로 해야 할 때이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다짐을 다시
떠올려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
지 헤아려 보자. 9월을 시작으로 앞
으로 남은 넉 달을 경건하고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보
답하도록 추석을 재충전의 시간으
로 보내면 좋겠다.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가 더욱 성숙되어 사랑이 깊어
지는 계절이 되도록.

함즐함울

국내선교

춘천 세린교회로 총출동

뜨거웠던 한 낮의 햇살이 잠시 주춤하던 지난 8월 27일, 춘천 맑은세상 세린교회에서 무지개 한마당 잔치가 있었다. 맑은세상 세린교회는 주님의교회 부목사로 재직했던 정희성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이다.

교회와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어울려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바운스, 전통놀이터, 야구 바운스에서 즐거운 놀이를 진행하였고, 매듭, 팔찌, 비즈 만들기의 체험활동이 있었으며, 교회 성도들

이 준비한 맛있는 먹거리(전과 김밥, 국수, 음료)가 참여한 사람들을 더욱 즐겁게 했다. 주님의교회 발맞사지 팀(호스피스)과 이.미용팀, 사진팀(가족.영정사진)이 참여하여 봉사를 하였고 오후 공연에 주오챔버(첼로, 바이올린)와 한국무용팀의 공연 협조가 있는 등 주님의 교회 여러 사역 부서에서 60여명이 참여하였다.

맑은세상 세린교회는 부족한 재정과 적은 교인(60여명)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이번 무지개 한마당 잔치를 통해 지역사회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려울 때 행해지는 주님의 지상과제 실현에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더해진다면 더 큰 열매가 맺혀짐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 후 정희성목사는 “주님의교회 선교팀의 방문과 사역을 통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전도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전혀 전도지를 돌리지 못하던 사

람들이 온 동네를 돌며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용기를 얻어 200%의 일을 해 내니까 우리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었던 영역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채워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승란 집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92

聖物(성물)의 材料(재료) 중
桂皮(계피, cinnamon bar)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 운 육계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 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힌을 가지고 (출애굽기 30장 23-24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한방에서 “계수나무 껍질”을 약재로 이르는 말이다. 계핏가루는 肉

桂(육계)를 곱게 빻은 가루이며 향료로 쓰인다. 桂皮 酸(계피 산)은 蘇合 香(소합 향)속에 遊離(유리)되거나 에스테르 형태로 존재하는 불포화 카르복실 산이며 독특한 방향과 매운맛이 있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桂(계수나무 계): 나무 또는 식물의 대표인 木(나무 목)과 封地(봉지)로 받은 넓은 땅을 의미하는 圭(영토 규)를 합쳐【특정의 나무를 영토 내에 심어 가꾸니 계수나무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圭(영토 규): 흙이나 땅을 뜻하

는 土(흙 토. 땅 토)를 상하로 겹쳐【제후가 천자로부터 받은 넓은 봉지를 다스리니 영토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皮(가죽 피. 껍질 피): 언덕 또는 덮여있음을 뜻하는 厂(언덕 한. 민엄호 엄)과 연결과분리 또는 꼬챙이나 꿰뚫다는 뜻을 지닌 丨(위 아래로 통할 곤. 뚫을 곤)과 손을 의미하는 又(또 우)를 합쳐【짐승의 몸에 덮인 것을 꼬챙이로 찢고 손으로 벗겨내었으니 가죽이다. 이러한 가죽은 동, 식물의 껍질이다】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35



송파구 추석맞이 1인 1품목 기부 나눔 캠페인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섬김의 손. 수집된 물품은 추석을 맞아 송파구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됩니다.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영화로 성경 읽기

〈나의 산티아고〉, 나를 발견하는 40일

길을 떠난 적이 있었는가? 그것도 아주 먼 길을 온전히 내 발에 의존해서 걸어본 적이 있었는가? 그 길을 내가 선택했던 적이 있었는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다.

서른여섯 살 먹은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성공한 코미디언이다. 어느 날 그는 공연 중에 쓰러지고 만다. 흔히 ‘번 아웃’이라는, 과로로 인해 체력이 소진된 상태이다. 의사는 석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처방을 내린다. 이 남자, 하페 케르켈링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고민한다. 일인이역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텔레비전의 에어로빅을 따라 해보기도 한다. 여전히 전화는 걸려오고, 무료하지만 시간은 가지 않는다.

어느 날 문득 그는 산티아고 길 순례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막상 순례길을 걷기 시작하는 첫 날 비가 쏟아지면서 그의 앞에 놓인 791km, 그 고난의 여정을 예고한다. 그는 수첩을 하나 준비해서, 매일 매일 그가 겪고, 생각한 것들을 그 수첩에 적기 시작한다. 그 길에서 그는 딸을 잃고 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그 길을 찾은 스텔라를 만나고, 취재 겸 체험을 위해 그 길을 찾은 키 작고 당찬 잡지 기자 레나를 만난다. 하페는 이 사람들과 길 가운데에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지기 반복한다. 이 두 사람은 또 각각, 순례길을 걷는 다른 남자들의 유혹과 협박과 장난을 거절하고 극복하며 길을 걷는다.



영화 ‘나의 산티아고’의 한 장면

변화무쌍한 날씨에, 남녀 구분 없는 숙소는 때로 누울 자리조차 찾기 어렵다. 마침내 그들은 최종 목표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한다. 하페의 기록은 42일간의 여정을 그리며 마무리된다.

하페의 이 기록은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2006)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줄리아 폰 하인즈 감독의 〈나의 산티아고(원제 Ich bin dann mal weg)〉(2015)이다.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곧 전 세계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고, 한국에서는 2015년 7월에 개봉되었다.

산티아고(Santiago)라는 지명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름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스페인어에서 ‘성스럽다’를 뜻하는 ‘saint’와 야곱을 뜻하는 스페인 고어의 ‘Yago’가 결합된 단어로, ‘성 야곱’이라는 의미이다. 스페인 뿐

아니라 칠레에도 같은 지명이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라고 하는데, ‘카미노’는 ‘길’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야고보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 이베리아 반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 후, 야고보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유해를 유럽의 서쪽 끝인 이베리아 반도의 끝으로 운구하다가 추적자에게 쫓겨 강에 빠진다. 제자들이 야고보의 이름을 부르자 조개껍데기가 나타나 유해와 제자들을 감싸서 살아났다고 전해져온다. 이후 조개껍데기는 성 야고보 순례자를 지켜주는 상징이 되었고, 순례자들은 조개껍데기를 매달고 다닌다. 산티아고 순례길 끝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는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고 전하며, 산티아고는 기독교의 3대 성지로 알려져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여러 코스가 있지만, 특히 프랑스 국경에서 출발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북부 지역을 가로질러서 산티아고까지 이르는 800km 가까운 길이 유명하다. 보통 이 길을 40일 정도에 걸어 도착하게 되는데, 영화 안에서도 하페가 이 길을 완주하는 데 42일이 걸렸다. 40이라는 숫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리는 기간이 40일이었다(창 7:12).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 산에서 40일단 단식하며 기도했고(출 24:18),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방랑한 햇수도 40년이였다.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40년을 통치했다(열왕 2:10). 예수님은 공생애 전 40일을 광야에 머무르며 기도했고(마태 4:1~2),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도 40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거쳐 이루어진 완전과 완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 40일의 여정은 그래서 뜻 깊다. 주인공 하페 케르켈링이 장난처럼 즉흥적으로 떠난 순례길의 끝에서, 말 그대로 자신을 발견한 것은, 달리 말해 40일의 고행 끝에 자신 속에 이미 임재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까닭은, 어쩌면 아직 ‘40일의 시련’을 겪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함줄함줄

〈영화로 성경읽기〉는 우리가 보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영화는 2015년 발표된 〈나의 산티아고〉 편입니다.

사역팀 소식

교회 주방 새단장

주님의교회 지하에 위치한 주방에 교회 건축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었다.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본 시공이 이루어졌고, 환경정리와 페인트 공사 등이 9월 8일에 마무리되었다. 평소 주방 내 봉사자들의 여러 작업동선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바닥이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았고, 위생부분의 개선

이 필요하여 당회의 결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설비로는 설거지자동기계가 설치되었고 더욱 쫄깃한 국수맛을 위해 각얼음제조기가 들어왔다. 대형 솥들은 구석으로 이동하여 고정작업자 외의 동선에서 분리되었고, 바닥엔 미끄럼 방지 시공을 하였다. 가스 및 불순물 공기 제거를 위해 배출공조시설을 수

리하고 보정하여 3배이상의 배출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주방 공사와 함께 식당 내부의 배식과 퇴식 동선이 조정되는데, 주방부에서는 교인들이 출입과 출구의 일방통행으로 인하여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지리라 믿고 협력을 부탁했다.

함줄함줄



겨자씨

4,5교구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9월의 첫 토요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였다. 앞서 몇 번의 방문기회를 놓친터라 이번 방문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묘역에 도착하였다. 메가시티 서울 도심속에 아담하게 자리한 묘역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하디, 헬버트, 무어 등 여러 선교사들의 묘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선교사들의 묘비를 둘러보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한 시대를 뜨겁게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취로 남은 묘비를 통해 그 자리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보며 우리는 어디에 서있을까? 생각해보았다. 양화진홀내 전시중인 로제타 홀 여사의 유품들-기도수첩, 성경, 일기 등-을 보며 한사람의 선교사가 이땅에 뿌린 헌신의 무게를 더욱 생생히 느낄수 있었다. 오 주님, 기도하오니 저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1890년 9월 14일 로제타 홀의 일기중)

강대수 집사

사역팀 소식

음악위원회 연합 수련회



8월 20일 토요일 오후 음악위원회 연합수련회가 '찬양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중예배실에서 초저녁까지 이어졌다. 우리교회의 다섯 찬양대와 주오오케스트라, 할렐루야찬양팀 등 모든 지휘자와 반주자는 물론 온가족이 함께 배우고 찬양드림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샬롬찬양대 삼십 여대원이 여름 내 땀 흘려 준비한 스킷드라마 '구겨진 전도지'는 알찬 내용과 명

품연기로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우리교회의 자랑인 바이올리니스트 현효원자매와 피아니스트 김성연집사의 열정과 감동이 넘친 연주 후에, 사랑의교회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이기선교수의 '찬양, 그 의미와 실제' 강의에서는 발성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공명된 소리를 직접 체험했고, 대원들 각자의 삶 속에 녹아드는 찬양이야말로 살아있는 간증임을 공유하며 맺었다.

장순욱 집사

고등부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기쁨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가장 불안했던 것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감격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선교의 형태로 진행됐던 이번 수련회를 뜨겁게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며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소속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다. 수련회나 사역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움도 못되는 나의 무능력함은 나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주었다. 이렇듯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 애썼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킷드라마의 리허설을 하는 시간이었다. 속으로는 낙담했지만 애써 웃으며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왔다. 그 공연 속에는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죄 속에서 허우적대던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 너무 죄송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고 있었을까... 그 시간 이후로 선교할

동의 매순간이 축복이고 은혜였다. 가장 소중한 그 사랑을 누군가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그리고 기도회에서, 작년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 끝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니, 이제는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마음을 품고 어르신들을 다시 찾아 내안의 예수님을 전했다. 흔쾌히 기도해드리는 것을 허락해주신 분도 계시고, 완강하게 거절해서 그 집을 향해 기도하는 것으로 족해야 했던 어르신도 계시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듯이, 그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는다. 부족하게 떠난 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가니 오히려 채우시고 회복시키셨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고등부 송인혁

고등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번수련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자 라는 생각을 가졌다. 어르신들을 위해 문화사역도 준비하고 인사도 공손히 드리고 일손도 돕는 중에 힘든 순간도 있었고, 더운 날씨 속에 대한 불평도 속으로는 하였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를 너무 친손녀 손자처럼 대해주셨다. 마지막 십자가를 걸어드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임재 하셔서 첫날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어떤 분은 원래 불교인데 '내 남은 삶을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네'라고 했고, 우리 기도에 눈물을 보이는 모습,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분의 변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가슴 한켠에 뭉클함이 일었다. 각 가정을 떠날 때마다 뭔가 놓고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덕분에 아닌 하나님 덕분에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고등부 최원석

목회칼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팔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윤리적 요구조건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종말론적 인증으로 볼 것인가? 다시 말해 천국을 가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축하한다는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결코 보상 차원에서 제시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천국을 미래의 약속들을 보상으로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천국

이 이미 그들의 것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모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다.

2.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질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까? 아니면 관계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까? 둘 다 포함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가난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을 말하는 것

은 아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취약함이 포함된다. 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려 의기양양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신다.(사 66:2) 그러니까 어떤 차원이든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배려, 은혜가 없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3.그렇다면 팔복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질의 사람이 되라는 요구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이 가지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도장 찍어 인증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확증하는 것이며, 이를 밝히고 축하하고자 하는 것이 팔복이 가지는 기능이다. **최방은 목사**

총회소식

추석맞이 '동행하는 주일'

우리 교회에서도 농촌지역교회를 이모저모로 돕고 있지만, 도시화와 인구절벽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교인 수의 감소와 맞물려 시골의 작은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다. 기독교보에 따르면 총회는 작은 교회와 대형 교회, 농

어촌지역 교회와 대도시 교회가 동행하고 균형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8일(주일)에는 지역 내 작은 교회와 고향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행하는 주일'로 지킬 것

을 권장하고 있다. 총회는 그동안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자매대상 교회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고, 이를 기반으로 동행하는 주일에는 지원하는 교회가 자립대상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관심을 갖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자

매교회가 아니더라도 고향 교회 방문은 시골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교인들에게도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함줄함줄

정신학원에 갇힌 한국 기독교의 역사 35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13)

계속되는 정신여학교의 지정학교 승격운동

1931년, 현재 미북장로회선교부의 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지정이 되면 매년 3천원이 더 필요한데 이것을 경기노회, 동문회, 경성유지들이 부담한다는 안을 가지고 평양에서 열리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1932년 승격운동을 위하여 경기도(현, 서울) 학무과로 협의하였으나 성경을 가르치는 한에는 승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루이스 교장 및 교무주임이 사표를 제출한다고 하자 학생들이 개학일인 4월 1일에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러나 교무주임이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여자 고등보통학교로 전학을 가도 좋다

는 안내문을 1,2학년 학부형들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반대하는 교장 간에 의견이 충돌해 학교에 분규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고자 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하게 되자 동대문서에서 경계를 서기도 했다.

학교는 미선교부로부터 지원이 줄어들어 교사의 월급도 1할정도 줄어든 상태였다. 루이스 교장은 안식년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기부금을 걷기로 하고 10월 13일 출국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33년 5월 귀국하였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아기나들이



채 윤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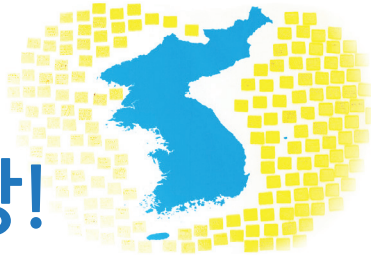
2016년 3월 22일생

1.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2.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3. 복의 근원이 되며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길

아빠 채승완 / 엄마 양서영, 2016년 8월 21일 3부 예배

2016 통일선교 바자회

하나님의 나라, 통일 장마당!



‘통일 장마당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주님의교회는 2년 만에 다시 통일선교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분단된 이 민족의 치유와 회복, 평화를 소망하며!

삼천리 방방곡곡 온 겨레가 함께 예배할 그날을 바라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섬김으로 통일을 사는 한 날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의 통일을 앞당깁니다.

모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통일 살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0. 22(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정신여중고 내

주관 : 주님의교회 통일선교위원회

협력 : 권사회, 안수집사회, 여전도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 교구 겨자씨

* 물품 기증 안내 :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증 물품 종류

의류 : 여성의류, 남성의류, 아동복, 유아복 등

(가능한 새 것같이 깨끗한 옷을 부탁드립니다.)

잡화류 : 가방, 모자, 스카프, 악세사리, 벨트, 신발, 장갑, 양말 등

생필품 및 주방용품 : 그릇, 식기, 거실용품, 욕실용품 각종생활도구 등

스포츠 및 레저 용품

전자제품 및 운동기구

아동도서 및 완구류

기타 판매가 가능한 물품 : 명절 추석선물세트도 가능

▶ 물품 기증 방법

기간 : 9. 25(주일), 10. 2(주일), 10. 9(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30분

장소 : 교회 앞마당

접수는 바자회 스텝 및 각 교구 도우미가 수고를 해 주십니다.

* 이 외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기업 후원 환영)

*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통일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교회 단신

2016년 항존직 후보추천 및 공천투표

2016년 주님의교회 항존직 선거를 위해 8월 28일(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지하 다목적실에서 중직자 추천 투표가 있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9월 4일(주일)에는 1부 예배 직후부터 당회 공천투표가 실시되어 항존직 후보자를 확정지었다. 앞으로 10월 2일부터 2주간 항존직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함줄함줄

교회 단신

4여전도회 수서복지관 봉사

매월 첫째, 다섯째주에 수서복지관에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1주일 동안 먹을 밑반찬 3가지를 만들어 포장까지 마무리하여 드릴수 있도록 준비 한다. 4여전도회에서는 무더위에도 정성과 사랑을 담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에 임했다.

함줄함줄



알립니다

1.입교 및 세례교육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교육 : 9/18 ~ 10/16(5주) 오후 1:30~3:30 초등부실(3층)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010.4322.9917)

2.12단계성경공부 10단계 개강 및 추가모집

개강 : 9/21(수) 오후 7:15 대예배실

추가모집 : 9/11(주일)~28(수) 안내데스크(1층)

문의 : 홍성욱 목사(010.9431.9910)

3.2016 통일선교 바자회 물품 접수

일시 : 9/25, 10/29 매 주일 오전 10:30~오후 2:30

장소 : 1층 앞마당

물품 : 의류, 잡화류, 생필품, 주방용품, 스포츠용품, 운동기구, 전자제품, 아동도서, 완구류, 그릇, 액세서리 등(명절 추석 선물세트도 가능)

문의 : 구태호 집사(010.3203.1237)

4.교사힐링데이

주제 : 교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일시 : 9/18(주일) 오후 1:30 다목적교육관(5층)

대상 :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 교사

5.2017년 예산편성 및 재정교육

대상 : 각 부서의 부서장, 회계, 총무

일시 : 9/25(주일) 오후 1:00

장소 : 1층 소예배실

문의 : 1층 사무실(02.416.5181)

6.2016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교육 안내

교육 : 9/8~12/9(매주 목요일 오후 1:00~5:00)

장소 : 각당복지재단 강당(종로구 경희궁 1길29)

대상 :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선착순 60명)

교육비 : 130,000원(주님의교회 등록교인 본인부담 50,000원)

문의 : 소봉순 팀장(010.5230.4120)

7.추석 연휴 관계로 주방 휴무 : 9/18(주일)